아시안컵 연기… 모레노 감독 운명은

2027 AFC 아시안컵,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내년 말 연기
대표팀 관계자 "사령탑 계약은 차기 집행부의 몫 돼야"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 연합뉴스

"새로운 사령탑 계약은 다음 집행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개막일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애초 내년 1월 5일에서 그해 12월로 대략 1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임시 감독 체제'인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 선임 과정도 사실상 '오리무중'에 빠지게 됐다.

축구대표팀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아시안컵이 연기돼 지금 집행부에서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을 대표팀의 정식 사령탑으로 결정하는 데 부담이 커졌다"라며 "12월 18일 축구협회장 선거를 치르려고 잠정적으로 준비하는 상황에서 대표팀 사령탑 선임은 다음 집행부로 넘기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부진으로 홍명보 전 감독이 사퇴하면서 스페인 출신의 모레노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 영입해 9~10월 A매치 4경기와 11월 A매치 2경기를 맡겼다.

계약기간은 11월 27일까지지만 축구협회는 A매치 6경기 결과에 따라 전력강화위원회 평가를 거쳐 애초 내년 1월 개막을 앞둔 2027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맡길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축구협회는 7월 정몽규 전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임하면서 '선장 없는 배'가 됐고, 이용수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축구협회는 사령탑 선임 등 중요 정책을 12월에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축구협회는 모레노 임시 감독이 A매치 6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더라도 곧바로 공식 사령탑으로 임명하지 않고 아시안컵을 치르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아시안컵이 내년 12월로 미뤄지면서 축구협회의 계획도 헝클어졌다.

11월 A매치 일정으로 모레노 감독과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선장 없는' 축구협회로선 A매치 일정이 당분간 없는 모레노 감독과 계약 갱신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전강위가 11월 A매치 2경기까지 포함해 모레노 임시 감독에 대해 평가하고 이 내용을 이사회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현재 집행부의 이사회는 차기 사령탑 후보 추천을 사실상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선 다음 집행부에 이 과정을 넘기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다.

그는 "회장 선거 이후 집행부가 꾸려지면 차기 사령탑 선정 과정도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대표팀 감독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는 만큼 모레노 임시 감독에게 사령탑 지위를 당분간 인정해주는 방식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창호 "내가 좋아하는 것 해 행복"

어제 바둑 최초 2000승 달성 기념행사 개최


이창호 9단. 연합뉴스

한국기원은 3일 성동구 마장로 사옥에서 세계 프로바둑 최초로 2000승을 달성한 이창호 9단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986년 8월 만 11세의 나이로 프로에 입단한 이 9단은 통산 최다인 메이저 세계대회 17회 우승 등 수많은 최연소·최다 기록을 수립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2026 쏘팔코사놀 레전드리그 11라운드에서 최명훈 9단에게 207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면서 프로 입단 40년 2개월 만에 대망의 2000승(1무 830패, 승률 70.67%)을 달성했다.

이날 바둑계의 수많은 축하 메시지 속에 이창호 9단은 "많은 분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열심히 바둑을 둬 이렇게 뜻깊은 기록까지 만들게 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창호 9단의 일문일답 중 일부.

▶**2000승을 달성한 소감은**=열심히 두다 보니 이렇게 좋은 기록까지 만들게 돼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의 목표는**=3000승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2500승까지는 욕심을 한번 내봐야 하나 생각을 해 본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은**=너무 많기는 하지만 응창기배 결승에서 창하오 9단과 둔 대국이다.

▶**아픈 기억으로 남은 대국도 있었을 텐데**=유창혁 사범이나 이세돌 사범에게도 큰 판에서 진 기억이 있는데 특히 유창혁 사범님은 내가 꼭 이기고 싶다고 생각한 대국에서 오히려 진 게 많았다.

▶**신진서 9단이 후계자라고 생각하나**=신진서는 (나를) 한참 넘어선 것 같다. 너무 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역 프로기사 생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혹은 15년이 될지 모르지만, 굳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냥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슬럼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프로기사로서 삶을 굳건히 이어온 원동력은 무엇인지**=어떤 쇼츠 같은 데서 연예인들이 뭔가를 '그냥 하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뭔가를 생각하고 하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하고, 그렇게 지루한 것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이 되면서 자기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연합뉴스

오타니 vs PCA, 내셔널리그 MVP 놓고 경쟁

AL은 알바레스 유력… 사이영상 미저로우스키·슐리틀러 무게


오타니 쇼헤이


피트 크로암스트롱


요르단 알바레스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NL) 최우수선수(MVP) 최종 후보에 올라 통산 다섯 번째 수상을 노린다.

MLB닷컴은 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투표로 선정하는 MVP와 사이영상 등 주요 개인상 최종 후보를 양대 리그에서 각각 3명씩 공개했다.

NL MVP 후보는 오타니와 피트 크로암스트롱(시카고 컵스), 브라이스 투랑(밀워키 브루어스)이다.

오타니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소속이던 2021년과 2023년 아메리칸리그(AL) MVP에 올랐고, 다저스로 이적한 뒤인 2024년과 2025년에는 연거푸 NL MVP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 투타 겸업에 나섰으나 왼쪽 무릎과 오른팔 이두근 부상이 겹치며 기세가 꺾였다. 7월 4일을 마지막으로 마운드에 서지 못했고, 시즌 후반엔 타격에서도 고전했다.

오타니는 올해 정규시즌을 타율 0.275(523타수 144안타), 30홈런, 81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89로 마쳤다. 투수로는 14경기에 등판해 85⅔이닝 8승 2패, 평균자책점 1.79를 기록했다.

이에 올해 NL MVP 수상자로는 한 시즌 40홈런-40도루를 달성한 크로암스트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MLB닷컴의 시즌 마지막 MVP 모의 투표에서 38명 전원에게 NL 1위 표를 받았다.

AL에서는 요르단 알바레스(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수상이 유력하다. 타율 0.316(567타수 179안타), 42홈런, 106타점으로 활약한 그는 같은 모의 투표에서 1위 표 29장을 받았다.

후니오르 카미네로(탬파베이 레이스), 보비 위트 주니어(캔자스시티 로열스)도 AL MVP 최종 후보에 포함됐다.

사이영상은 NL 제이컵 미저로우스키(밀워키), AL 캠 슐리틀러(뉴욕 양키스)가 유력한 수상 후보로 꼽힌다.

미저로우스키는 16승 5패, 평균자책점 1.80, 탈삼진 252개를 기록했다. 슐리틀러는 14승 6패, 평균자책점 1.95, 탈삼진 239개로 활약했다.

수상자는 12일 사이영상, 13일 MVP 순으로 발표된다. 연합뉴스

남희두 신시내티 유니폼 입고 북미 아이스하키 마이너 데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수비수 남희두(29·신시내티 사이클론스)가 북미프로아이스하키 마이너리그(ECHL) 데뷔전을 치렀다.

남희두는 2일(한국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휠링 웨스뱅코 아레나에서 열린 2026-2027 ECHL 정규리그 6차전 휠링 네일러스와 방문 경기에 출전했다.

세 번째 수비 조합으로 빙판을 밟은 그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으나 소속팀은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해 승점 2를 추가했다.

2025-2026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일정을 마친 뒤 HL 안양과 재계약하지 않은 그는 10월 신시내티 트레이닝 캠프에 합류해 17일 정식 계약을 맺었다.

남희두는 아시아리그 5시즌 동안 정규리그 155경기에서 13골 63도움을 올렸으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24경기 2골 11도움을 기록했다.

ECHL은 북미프로아이스하키리그(NHL)의 3부 리그 격에 해당하는 무대다. 연합뉴스

제주지역창업페스티벌 × 스타트업위크 JOIN2026

모두의창업 in JEJU

2026. 11. 5. Thu 13:30 ~



창업수다 : 모두의 Talk

리얼 창업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선배창업가, 멘토와 함께
'창업'에 대해 Talk Talk!

쉐라톤 제주 호텔 2F 서브홀3

LiNK-UP DAY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상담하고
초기스타트업의 IR을 현장에서!
* 2026 스타트업 열전 연계

쉐라톤 제주 호텔 8F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OREA START UP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